

KOTRA 개최 공급망 재편 대응 동남아 3국 투자환경 세미나 참가
결과 보고(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)

2024.7.5

한-인도네시아 인프라 협력센터

□ 행사 개요

- 일시/장소 : 2024. 7. 4(목) 15:00 / 웨비나
- 참석 : 인투자청(BKPM) Cahyo Purnomo 국장,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장나원 과장, 국내복귀지원팀 이혜인 과장, 베투자청(FIA), 태투자위원회(BOI) 등

□ 인도네시아 관련 주요 내용

- 경제 성장
 -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, 넓은 영토만큼이나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음
 - 코로나 이후에도 매년 5% 대의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
 - WB, OECD,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주재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4년에도 5%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
- 자원 수출
 - 자원이 총 수출의 20%를 차지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의 수요와 가격 변동성이 주재국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
 - 한아세안 FTA인 한-인니 CEPA를 활용할 수 있음
 -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원 수립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ESG 투자
 - 중국과 같이 ESG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

- 금융당국은 모든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도록 제도 화함
-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여러 인증 제도와 수입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
- 내년부터 720여개 상장기업 대상 ESG공시 의무화 검토 중

○ 수입 식품 인증

- 주재국에서 생산, 유통되는 또는 수입되는 식품, 의약품에 대해서는 BPOM(인식약청)에 등록해야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- 할랄 인증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수입 허가를 보조한 파트너사가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증 획득과 관련한 시행령이 수시로 변경되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유의가 필요함
- 수입 업체가 신청을 하면 부처가 검토를 하고 수입된 승인 물량을 통보해 주는데 지속적으로 서류 심사 또한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

○ 최근 경제 동향

- 2045년까지 연평균 6.4%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4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, 1인당 GDP 는 29,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- 정부는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. 특히, Net Zero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
-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,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집중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
- 최근 몇 년간 금속, 비금속, 물류,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, 특히 천연자원 다운스트림 가공 산업에서 성장이 두드러짐

- 전기차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, 특히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수입세 완화, 가정용 충전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함
- 투자자들을 위한 인센티브와 함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인허가 시스템(OSS)을 도입하였으며,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외국인 소유 가능성을 허용함

※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는 우리 기업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,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,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